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1주일

제37권 50호(가례) 2017년 11월 5일

[오늘의 묵상]



오늘날 지도자들의 사명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주님께서는 제1독서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사제들아, ……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당시 사제들은 민중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형식주의에 몰들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옷차림으로 다른 이를 차별한다면 오히려 옷의 노예가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한다면 이웃은 없어지고 재물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사이들은 다른 이들과 차별된 행동을 하며, 자신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린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찬미하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였을 것입니다.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매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니며 묵상하기 위함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과 벽을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도록 식별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매일 미사 11월호 -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트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 (2,3,4주일)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도/대견) ●꾸리아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2:3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심원택 토마스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원)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권순봉 요안나, 김안셀모 & 허루치아
	(생)배보검
학생 미사	(원)성재명 요셉, 박찬호 & 서인현 스테파노, 주현진
	(생) 주용자 베로니카
주일 낮 미사	(원) 박정미 클라라, 엄정자 분다, 정선결 모니카, 김정례 수산나, 이경용 야고보,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리아, 김재곤 프란치스코, 김판봉 안나, 강중익 & 양영순, 최병임 & 방영자
	(생) 박홍룡 요셉, 손석 스테파노, 성소후원회 회원들, 권순길세실리아 & 오신재 메히틸다 & 장영우 엘리사벳 & 김충섭 마틴, 김안나 & 김데니엘 & 장아네스가정, 오 케이라니, 박인규 요셉, 권 아그네스, 김지훈 대전 안드레아, 김마누엘라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말라키예언서(Malachi) 1,14-2,2.8-10

회답송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니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떼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제 2독서 테살로니카1서(1Thessalonians) 2,7-9.1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복음 마태오(Matthew) 23,1-12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VI.미약한 반응

56. 그러는 사이에 경제세력들은 투기와 경제적 수익추구를 앞세우는 현재의 세계 체제를 계속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인간존엄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파괴와 인간적 윤리적 타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방해 공작으로 세계가 실제로 얼마나 유한하고 덧없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절대규칙이 되어 버린,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자연환경처럼 취약한 모든 것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³³⁾

57. 어떤 자원이 고갈된다면, 고귀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결국 새로운 전쟁의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은 언제나 환경과 풍부한 민족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누군가 핵무기와 생물학적 무기사용을 고려한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화학전, 세균전, 생물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도 자연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공격무기의 개발을 위한 실험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³⁴⁾ 정치는 새로운 갈등을 예견하고 그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는데 커다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세력들은 이러한 노력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정치적인 계획에는 넓은 시각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급하고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기억될 뿐일 터인데 그 누가 권력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계속>

33.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gaudium), 2013.11.24., 56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12쇄), AAS 105(2013), 1043면.

34. 요한 바오로 2세,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989.12.8., 12항, 「회보」 제56호(199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AAS82(1990), 154면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53	253	193
봉헌	268	268	269
성체	292	292	303
파견	346	346	350

내 영혼의 연말 결산

2017년도 이제 채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고 결산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 영혼도 '연말 결산'이 필요하겠지요? 제가 죽을 때 제 인생 전체에 대한 결산의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위령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는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펼쳐놓은 삶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완성시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제 죽음 준비를 위한 중요한 충고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마태 23,1-7)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나무라시는 내용이고, 후반부(마태 23,8-12)는 군중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와 바리사인들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었다'고 질책하십니다. 그들이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며, 겉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성구갑과 옷자락 술을 길게 달고 다니고,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높여 불러주기를 바라면서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 속은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권위주의와 위선으로 가득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고 하지요. 유대교 지도층에게 하신 이 비판의 말씀이 꼭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사는 꼴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부끄러울 뿐입니다. 참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한 기준은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삶이고, 거룩함을 말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삶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과 제자들(=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이니, 스승이나 아버지, 선생으로 불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들로 인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선의 위험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너희는

형제들이니 서로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으로부터 비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섬기는 삶'으로의 언행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삶이 조금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을 낮추시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철저한 섬김)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말하는 것과 실제 삶 사이의 간격이 큼니다.(知行不一致, 言行不一致)

제 영혼의 연말 결산을 준비하며, 이런 불일치의 간격을 올해에는 얼마나 좁혔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보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감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일기장을 샀다

잘못이나 실수가 컸던 날에는
일기를 쓰는 손에 유난히 힘이 들어가곤 했지.
꼭꼭 눌러쓴 글씨 자국이 공책 뒷장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일기를 쓰면서도
그날의 잘못과 실수를 곱씹곤 했었어.
후회와 반성이 길었다고나 할까.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에 일기를 쓰니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페이지만 넘기면 흔적도 없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회

아반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지아 클라라	송인선 안젤라	박은혜 클라우디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신종철 아브라함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박혜경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1월
위령성월**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위령의 날 (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친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날마다 한번씩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 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 고백과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

◆ 제34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 미사

- 일시: 11월2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점심: 본당 제공
- 행사당일 오전 10시까지의 공원 입장 무료, 이후는 본인 부담으로 차량 당 \$ 8.00 입니다.(Carpool 을 부탁드립니다.)
- 2부 행사: 성당 별 장기차량
- 장소: 엘 도라도 파크 El Dorado Park, East
75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
- 미사집전: 호세 고메스 대 주교님
- 주관: 성 그레고리 천주교회
- 이날 본당 평일 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 2017년도 VIRTUS 교육

- VIRTUS II (제교육): 11월 18일(토) 오후 2시~3시30분
(매4년마다 1.5시간)
- 장소: 강당
- 수강신청: 이름과 교육 날짜를 문자로 예약,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행합니다.
- 연락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마른 대추 판매합니다

- 11월19일,26일(주일) 매 미사 후에 품질이 우수하고 맛도 좋은 대추를 판매합니다. 많은 성원부탁 드립니다.
- 판매가격: \$ 20/마른 대추, \$40/대추액기스
 - 주최: 백삼위 올뜨레아

◆ 독감 예방주사 안내

- 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성당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도와드립니다. 올해는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아직 예방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플라자 약국에서 2주간 주사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 일시: 11월 6일~18일 (2주간)
 - 장소: 플라자 약국 3400 Lomita Blvd
 - 문의: 김충섭 마틴 ☎ (310)530-3010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 5일: * 김밥(\$4), 컵라면(\$2, 토남 구역 봉사)
* 주일학교: 스팸 무스티 (7 학년)
- 11월 12일: * **홍합 미역국** (\$3, 토북1,2반)
* 주일학교: 샌드위치 (6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병태 김영덕 김원모 김재희 김정순						성전헌금	구자운 김영덕 김원모 김재희 김주량 김 준					
	김정웅	김주량	김 준	박인건	박종열	반비오		박인건	박종열	반비오	신중철	안민수	윤화경
성미선	손영희	송종두	신중철	안민수	오일순		이일길	이주창	장영진	지경수	최길주	최지영	
유보나	윤화경	이근태	이일길	이주창	임한나		이크리스						
장영진	지경수	최길주	최지영	홍석인	이크리스								
합계:\$3,820							합계 : \$1,270						
주일미사헌금 :\$2,345							도네이션 : \$ 100						
주일학교 : \$ 220							재활용품 : \$223						

◆주일학교 TA 모집

주일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도울TA를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전진을 받은 고등부 학생
- 지원서 제출 및 최종 면담 후에 결정합니다..

◆중·고등부 성경공부 'Junior Bible Study'

- 일시: 11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문의: 이명서 수녀 ☎ (310) 741-0556

◆젊은이들의 '기도 맞들이기' 모임 (찬양과 나눔)

- 일시: 11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 성당
The Saints Koer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Torrance, CA 90505
- 문의: 이명서 수녀 ☎(310) 741-0556

남가주 소식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11일(토)
연도 : 오후 1시15분, 미사:오후 2시
- 장소: Holy Cross Cemetery Chapel
5835 West Slauson Ave. Culver City, CA 90230
- 주최 : 남가주 천주교 사제협의회
- 주관 : 천주교 성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남가주 '주사위' 찬양가족 모집

'주사위'란 주님의 사랑을 생활성가로 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약자로 남가주 내 생활 음악단체입니다.

- 모집부문 : 남녀 보컬 및 키보드 각 1명씩
- 자격 : 음악을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전할 수 있는 분
- 일정 : 매년 정기 공연 및 음악피정
- 지도 : 성 아그네스성당 최대제 로베르또 신부
- 신청 : 허 사도요한 jusawi1122@gmail.com
☎(213)923-0898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소공동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김양금 안나 11/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11/11(토) 오후6시 강당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11/14(화)오후7시30 성당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대우 비오 11/19(일)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홍광선 요셉/엘리사벳 11/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11/11(토)10시30분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테레사 755-8462	김준 방지거 11/17(금)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11/14(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11/18 (토) 6시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영 클라라 938-8089	최 스테파노 11/11(토)오후5시
	3	1,2반과 같음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11/11(토) 오후6시 성당 2층R3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박의혜 세실리아 11/10(금) 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박경주 요아킴 11/17(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추수감사절 야외미사 대체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변복순 베로니카 11/08(수)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체 단체모임	1시
--------	----

광산이 붕괴되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다!

“우린 당신네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도울 거야.”

내 목소리는 거의 잠겨버렸는데, 저쪽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다.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저쪽의 어둠에 대고 계속 말을 걸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강한 확신이 내 안으로 파고들면서 어떤 것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비록 광부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할지라도 하느님께서서는 들으신다. 이런 생각이 돌면서 내 말이 계속될수록 희망도 점점 커져갔다. 나는 느낌이 오는 대로 말했다.

“당신들은 외톨이가 아니야.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니까.” 저녁 8시경, 제프가 나를 부르더니 첫 번째 구조 드릴이 박혔다고 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됐지만 나는 헤드셋을 끼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있으니깐.”

밤 10시경, 나는 인근에 있는 월마트로 차를 몰았다. 잠깐이라도 차 안에서 잠을 청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인 토요일 새벽 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며 내 임무를 시작했다. 다시 지하의 광부들에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결 느낌이 좋았다. 이제 내 입에선 긴 기도가 흘러 나왔다. 이제 나는 드릴이 내는 기계음 소리와, 구조대원과 기자들이 내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가득한 저쪽에서 떨어져 나와 지하의 광부들과 완전히 연결된 것 같았다. 밤 9시경 제프가 나를 부를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밤10시가 조금 지났을 때, 드디어 드릴이 지하 7.3Km에 있는 광산을 뚫었다.

관을 통해 공기 압축기로 공기를 내려 보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을 써보라며 제안했고, 허락을 얻었다.

응답이 없으면 어쩌나?

기계 종류는 치워지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위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난 이틀 동안 나는 저쪽의 광부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그 덕분에 감기까지 걸렸다. 그런데 지금, 이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시도한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저쪽에서 여전히 응답이 없다면 어떡하나? 하느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헤드셋을 끼고, 드릴이 뚫은 구멍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탐사기를 내려 보낸 뒤 그것에 대로 또다시 말을 걸었다.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어요. 내 말 들려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 나는 거의 대답을 구걸하듯이 다시 물었다. 주님, 제발 재 말을 듣게 하소서.

“내 말 들려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예, 들려요.”

내가 환청을 들은 건 아니겠지? 나는 다시 물었다.

“내 말 들려요?”

방금 그 목소리가, 낮지만 강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린 분명히 듣고 있어요.”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다시 확인해야 했다.

“거기 갇혀 있는 광부들 맞나요?”

이 짧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이 들려왔다.

“예.”

이 순간, 하느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을 건네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나는 경외심에 사로 잡혔다. 나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작업자들에게로 돌아서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사람들은 기쁨과 흥분으로 웅성거렸다. 질문이 다시 이어졌다.

“거기 있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인가요?”

“모두 아홉 명입니다.”

나는 손가락 아홉 개를 펴 보였다. 모든 사람이 거의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와 얘기를 나누던 그 광부가 다른 동료들의 이름을 대며 안부를 물었다. 지하에서 3일을 보내고서도 동료들의 안부를 가장 궁금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내게 감동을 주었다. 구조 팀이 작전을 개시하면서 광부를 덮었던 석탄이 견혀졌다.

주일 새벽 3시 30분, 마침내 나는 장비를 트렁크에 싣고 스탠치크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을 향하여 차를 몰았다.

후일 나를 보는 사람마다, 퀘크릭 광부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물어올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기도 소리 같았고, 하느님의 소리 같았다고! 광부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마치 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친 기도 덕분에 광부들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것처럼 우리의 갇가지 문제도 하느님의 도움을 청한다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날 구조된 사람은 광부들만이 아니다! 나 그리고 우리!

◆롭 자렘스키 / 가톨릭 굿뉴스

모든 성인의 통공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곧 ‘거룩한 것들의 공유’와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가 그것입니다.

모든 성도(聖徒)의 친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에 각자의 선(善)은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선의 공유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모든 선이 지체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전달은 교회의 성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946~948항 참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교회에는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위대한 성인들과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살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아직 연옥의 정화 과정 중에 있든지, 이미 하느님의 영광 속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도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호성인이나 좋아하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느님 곁에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을 떠난 가족들에게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청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아직 연옥의 정화 과정 중에 있는 죽은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죄는 공동체에 손상을 입힙니다.

우리는 천국의 성인들과 일치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축일을 지내고 그들의 모범을 따릅니다. 천국에 있는 성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며,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와 천국의 성인들은 천국에 들지 못한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의 친교를 믿습니다. 곧,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남은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하늘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친교 안에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과 그분의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자 바오로 6세 교황)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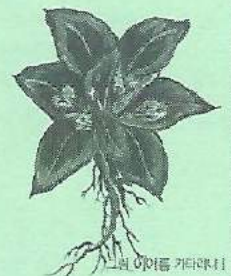
우리는 ()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남은 ()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오직 하나의 ()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10월29일 자 정답: 인호, 예수 그리스도, 선택, 부르심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42사랑의 묘약인 합환채

합환채란 어떤 식물일까? 영어 성경은 합환채를 ‘사랑의 사과’(Love Apple)로, 일본 성경은 ‘연애 가지’라고 번역했다. 아랍인들은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믿어 ‘악마의 사과’(Devil’s Apple)라고 불렀다. 합환채 과실은 향기롭지만(아가 7,14 참조) 열매 속에는 독성분이 있어서 많이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킨다. 중동지역에서는 독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태력 증진 효과(창세 30,14-16 참조)와 약간의 마약 성분 때문에 부부들이 즐겨 먹었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녹스 등 각종그릇, 한국떡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2012 236th ST.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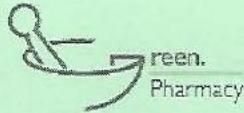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마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쳐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